

NOW

일본

# 산업리포트

일본의 對중남미 경제관계와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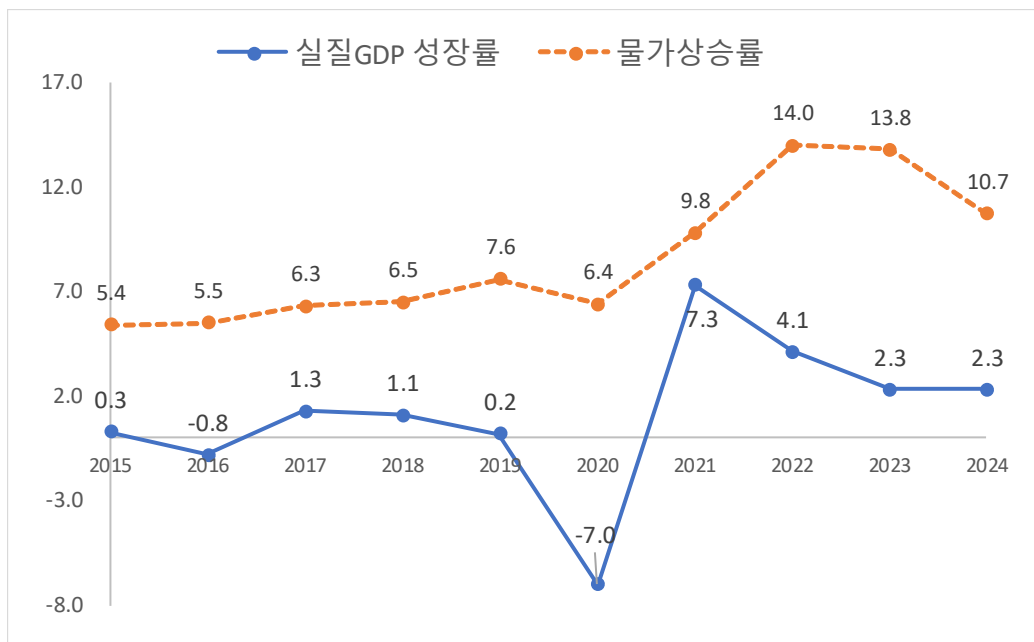
## 일본의 대(對) 중남미 경제관계와 진출전략

### □ 중남미 지역의 인구 변화와 경제 동향

- UN의 추계에 따르면 2021년 중남미 지역의 총인구는 약 6억 5천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브라질이 약 2억, 멕시코가 약 1억 2천만, 콜롬비아가 약 5천만, 아르헨티나가 약 4천 6백만 명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시장의 비중이 큼.
  - 합계출산율(TFR)은 2000년 2.61명에서 2010년은 2.19명, 그리고 2018년에는 2명을 밑돌기 시작해 2021년에는 1.89명까지 감소함.
  - 한편 중남미 지역에는 전 세계 일본계 주민의 약 60%를 차지하는 약 230만 명의 일본계 중남미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음.
  - 이주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된 일본계 중남미인의 거주국을 보면 230만 명 중 약 190만 명이 브라질에, 약 10만 명이 페루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80% 이상은 초급수준 이하의 일본어만 구사할 수 있는 등 일본인이란 의식이 강하다고는 볼 수 없음.
- 2023년 10월 IMF 추계에 의하면 중남미 국가들의 명목GDP는 2022년 약 5조 7천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6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국가별 GDP는 브라질이 약 2조 달러, 멕시코가 약 1조 4,700억 달러, 아르헨티나가 약 6,400억 달러의 순임.
- 실질GDP 성장률은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는 마이너스 7.0%로 곤두박질쳤으나 2021년에는 7.3%로 반등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2.3% 성장이 예상됨 (그림1).
  - 주요국의 실질GDP 성장률을 보면, 아르헨티나가 2022년 5.0%에서 2023년에는 ▲2.5%로, 브라질이 2022년 2.9%에서 2023년 3.1%로, 멕시코가 2022년 3.9%에서 2023년 3.2%로, 칠레가 2022년 2.4%에서 2023년에는 ▲0.5%로, 콜롬비아가 2022년 7.3%에서 2023년 1.4%가 될 것으로 나타나 브라질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률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약 5%~7%대를 기록하다가 코로나 이후인 2021년에는 9.8%, 2022년과 2023년에는 14.0%와 13.8%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그림1).
- 국가별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아이티, 수리남의 물가상승률이 특히 높으며 역내 경제대국인 브라질은 2022년 9.3%에서 2023년에는 4.7%로, 멕시코는 2022년 7.9%에서 2023년에는 5.5%로 물가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임.
-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주요 국가들은 2021년부터 물가상승 대책으로 정책 금리를 인상해 왔으나 2023년부터 물가상승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점차 금리 인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그림1〉 중남미 지역 실질 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201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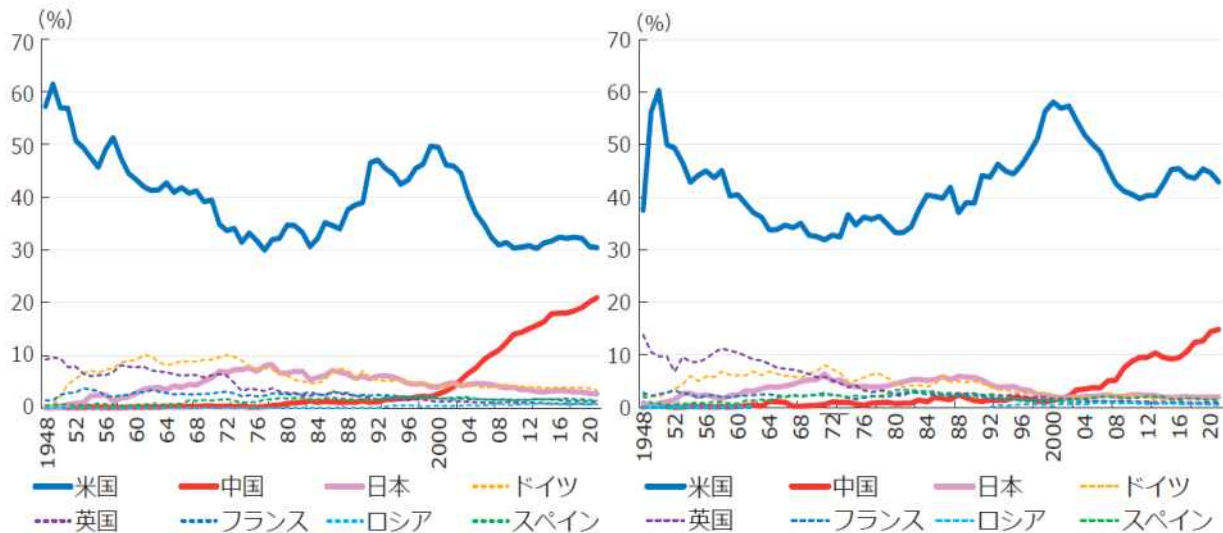
(주) 2023~24년은 추정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을 토대로 작성

## □ 對중남미 통상정책의 방향과 중국 뒷마당화에 대한 우려

- 6억 5천만 명 중에서 상대적으로 두터운 중간소득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처로서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고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여 생산 거점으로써도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중남미 지역을 주목하고 있음.
- 또한 기후변화 대책과 디지털 관련 산업의 기반이 되는 리튬이나 구리 등 전략 광물의 주요 공급원임과 동시에 콩, 옥수수, 닭고기 등 식량 공급원임.
- 일본은 멕시코(2005년 발효, 2012년 개정의정서), 페루(2007년 발효), 칠레(2012년 발효)와 개별 경제제휴협정(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맺고 있으나, 중남미 지역을 포괄하는 협정이 없는 점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음
  - 콜롬비아와는 현재 EPA협정 교섭 중에 있고, TPP에는 멕시코, 페루, 칠레가 가맹국이어서 기존에 체결된 국가간 EPA협정과 중첩됨.
- 기존에는 미국 기업의 뒷마당이었던 중남미 지역에 중국 기업의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의 뒷마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가지고, 일본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식량과 자원 확보를 위해 중남미 지역의 광산, 전력, 교통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와 용자에 주력해 오고 있음.
  - 2008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에 의한 용자액 비중을 보면 아시아지역(전체의 약 36%) 다음으로 많은 곳이 중남미지역(전체의 약 26%)임.
  - 식량과 자원의 수입뿐 아니라 중국의 중남미 수출액도 200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약 33배나 증가한 결과, 2022년 중국의 중남미 수입액은 3,114억 달러, 수출액은 1,855억 달러에 달함(그림2).

〈그림2〉 중남미 수출입에서 각국 점유율 변화 (왼쪽:수출액, 오른쪽:수입액)



(자료) 外務省『外交青書 2023』p.111

-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용자보다는 직접투자(FDI) 중심으로 변화해 오고 있는데, 이에 많은 중남미 국가들도 리튬개발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자본의 유치에 적극적인 상황임.
- 최근에는 리튬개발, EV제조, 그린수소개발,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EV제조에 필수적인 리튬전지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70%를 차지하는 중남미 5개국(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멕시코, 브라질)의 광산 권익 확보에 적극적임.
- 이러한 식량과 자원 확보라는 중국의 전략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對중남미 전략의 방향과 중첩되어 이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은 그 규모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임.

## ☐ 중남미 주요국과 일본의 무역 및 투자 관계

- (멕시코) 2020년 7월 발효된 USMCA(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Canada)의 가맹국인 멕시코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FTA(EPA포함) 체결국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93.1%, 전체 수입액의 65.7%를 차지할 정도로 자유무역에 적극적임.

- USMCA의 발효이전에도 NAFTA 가맹국이었던 멕시코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지역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21년부터 자동차와 IT분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기준으로 FDI유입액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56.6%, 캐나다가 10.2%로 상당히 많고, 일본의 비중은 6.0%인 반면 미중관계의 악화로 인해 중국 기업의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임.
  - 2022년 일본 기업의 투자액은 약 21억 7천만 달러이고, 일본 수출액은 1조 4,412억 엔, 수입액은 8,427억 엔으로 일본은 약 6천억 엔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일본 기업의 직접투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강판, 탄소, 종자, 고무, 에너지, 공조기, 엘리베이터 분야가 대부분임.
  - 2022년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등 운송기계(26.5%), 철강 및 관련 제품(19.8%), 일반 및 산업 기계(18.3%), 전기 및 전자기구(15.3%)임. 주요 수입 품목은 농수산물(21.1%), 전기 및 전자기구(16.8%), 광물생산물(15.0%), 의료용을 중심으로 한 정밀 광학기구(13.8%)임.
  - 2021년 기준 1,271개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2022년 기준 10,143명의 일본인이 재류하고 있음(표1).
- (브라질) 현재 발효중인 FTA 체결국은 주로 중남미 지역 국가이고, 역외 국가로는 인도(일부 품목에 한정된 최혜국무역협정),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이집트와 FTA를 체결한 상태임. EU와 싱가포르와는 협정 타결된 상태이고 한국, 캐나다 레바논과는 교섭중인 상황임.
- 2022년 실질GDP성장률은 전년대비 2.9%,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의 10.1%에서 낮아진 5.8%, 무역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22년 기준으로 FDI 유입액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25.2%, 네덜란드가 19.8%, 룩셈부르크가 8.1%, 스페인이 6.1%이고, 일본의 비중은 1.7%임.
  - 2022년 일본 기업의 직접투자액은 약 7억 5천만 달러이고, 일본 수출액은 5,674억 엔, 수입액은 14,634억 엔으로 일본은 8,960억 엔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22년에 발표된 일본 기업의 직접투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 브리지스톤), 에너지(미쓰이물산)분야임.

- 2022년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16.9%), 자동차용 엔진부품(3.0%), 집적회로(2.7%) 인데, 자동차와 산업용 기계 부품이 대부분을 차지함. 주요 수입 품목은 옥수수(20.5%), 철광석(16.7%), 닭고기(14.3%), 커피원두(5.8%) 등 농산품 및 광물임.
  - 2021년 기준 679개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47,472명의 일본인(일본계 브라질인 제외)이 재류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2022년 실질GDP성장률은 전년대비 5.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의 50.9%보다 높아진 94.8%까지 이르고 있는데, 임금상승률을 월등히 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2022년 3월 IMF로부터 약 450억 달러의 지원을 받기로 함.
- 외화부족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는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자본거래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해외투자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대부분은 제조업과 석유 및 가스, 광물임.
  - 2022년 12월 도요타 자동차는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자동차 생산 시설 확대를 위해 6천만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발표하여 연간 약 18만대의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2년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이 대부분이고 기타 전기회로와 의료용 기구, 인쇄기 등이 있음. 주요 수입 품목은 옥수수(22.5%), 무기화학품/귀금속/희토류금속(13.0%), 갑각류(8.3%), 과일 및 주스(5.8%) 등 농산품 및 광물임.
  - 2021년 기준 70개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2022년 기준 11,189명의 일본인이 재류하고 있음.
- (칠레) 2022년 실질GDP성장률은 전년대비 2.4%,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8%인데, 주력 수출 품목은 전체 수출액의 46.7%에 달하는 구리 및 철광 자원임
- 국가별 수출액 비중은 중국이 가장 높은 39.4%, 미국이 13.9%, 일본이 7.6%, 한국이 6.2%이고, 수입액 비중도 중국이 가장 높은 25.3%를 점하고 있음.
  - 2022년 일본의 수출액은 3,010억 엔, 수입액은 9,815억 엔으로 일본은 6,805억 엔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22년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경유 및 디젤(27.8%)이고, 나머지 상위 품목 대부분은 자동차 및 관련 제품임. 주요 수입 품목은 구리(53.7%), 연어(8.5%), 리튬(5.9%) 등 광물 및 수산물임.
  - 미쓰비시상사는 2023년 6월 칠레 북부에 위치한 마리마카(Marimaca) 구리 광산의 권익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기업에 지분 투자를 결정한 바 있음.
  - 2021년 기준 117개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2022년 기준 1,576명의 일본인이 재류하고 있음.
- (페루) 2022년 실질GDP성장률은 전년대비 2.7%,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5%인데, 주력 수출 품목은 구리(전체의 30.7%), 금(전체의 12.7%)과 농산물(13.3)임.
- 무역 상대국은 칠레와 유사한 구조인데, 국가별 수출액 비중은 중국이 가장 높은 32.8%, 미국이 13.6%, 일본이 5.0%, 한국이 4.3%이고, 수입액 비중도 중국이 가장 높은 26.1%임.
  - 미쓰비시상사는 2018년부터 영국의 앵글로 아메리칸사와 합작으로 약 890만 톤의 구리 매장이 추정되는 페루 남부의 케자페코 구리 광산에 투자(총 투자액 55억 달러) 하여 2022년부터 본격 생산을 하고 있음.
  - 2022년 일본의 수출액은 972억 엔, 수입액은 3,930억 엔으로 일본은 2,958억 엔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22년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경유 및 디젤(27.8%)이고, 나머지 상위 품목 대부분은 자동차 및 관련 제품임. 주요 수입 품목은 구리(53.7%), 연어(8.5%), 리튬(5.9%) 등 광물 및 수산물임.
  - 2021년 기준 69개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2022년 기준 3,117명의 일본인이 재류하고 있음.
- (콜롬비아) 2022년 실질GDP성장률은 7.5%,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1%인데, FDI 유입이 2022년에 사상 최고액인 1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발표됨.
- 수출 품목은 석유 및 석탄 등 광물성 연료와 비철금속이 전체의 56.1%를 점하여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무역 상대국은 칠레 및 페루와 달리 수출액에서는 미국과 EU 비중이 높는데 비해 중국의 비중은 낮으나, 수입액에 있어서는 중국(24.2%)과 미국(24.3%)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높음.
  - FDI 유입은 미국과 유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국과 일본의 비중은 전체의 각각 1.6%와 0.2%로 낮은 상황임.
  - 2022년 일본의 수출액은 1,790억 엔, 수입액은 1,306억 엔으로 일본은 484억 엔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22년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관련부품(33.2%)과 철강(21.1%), 보일러/기계 및 부품(19.2%)임. 주요 수입 품목은 커피/홍차/향신료(45.8%)로 가장 많고 석유 및 석탄 등 광물성 연료가 24.8%를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83개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2022년 기준 1,221명의 일본인이 재류하고 있음.
- (소결) 중남미 주요국과 일본의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평가하면, 멕시코와는 USMCA가맹국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과 소비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진출하고 있고, 브라질과는 FTA/EPA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으나 거대한 소비 시장이라는 매력과 광물 및 식량 자원 확보처로서의 매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페루, 칠레, 콜롬비아는 구리, 철광, 석유 및 석탄과 같은 자원과 식량 확보라는 관점에서 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1〉 중남미 주요국과 일본의 무역 투자 관계

## 멕시코

※인구 (2022년)	1억 2,955만 명(잠정치)		
※1인당 GDP (2022년)	1만 868 달러		
	2020년	2021년	2022년
※실질GDP성장률(%)	△8.0	4.7	3.0
※소비자물가상승률(%)	3.2	7.4	7.8
※실업률(%)	4.4	4.1	3.3

※일본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

년	일본 수출(A) (억엔)	일본 수입(B) (억엔)	A-B (억엔)	직접투자액 (달러)
2018	12,829	6,998	5,831	22억 8,911만
2019	11,577	6,440	5,137	15억 3,154만
2020	8,948	5,814	3,133	13억 3,792만
2021	11,896	6,348	5,548	13억 6,713만
2022	14,412	8,427	5,985	21억 7,097만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1년, 외무성 통계)

1,271사

※재류일본인(2022년)

10,143명

※주요협정: 조세조약(1996), EPA(2005, 2012개정), 세관상호지원협정(2018)

## 브라질

※인구 (2022년)	2억 775만 명		
※1인당 GDP (2022년)	8,995 달러		
	2020년	2021년	2022년
※실질GDP성장률(%)	△ 3.3	5.0	2.9
※소비자물가상승률(%)	4.5	10.1	5.8
※실업률(%)	13.8	13.2	9.3

※일본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

년	일본 수출(A) (억엔)	일본 수입(B) (억엔)	A-B (억엔)	직접투자액 (달러)
2018	4,415	7,612	△ 3,197	11억2,405만
2019	4,102	8,723	△ 4,621	19억5,802만
2020	3,154	8,012	△ 4,857	20억1,148만
2021	4,596	10,825	△ 6,229	5억5,412만
2022	5,674	14,634	△ 8,960	7억5,565만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1년, 외무성 통계)

649사

※재류일본인(2022년)

47,472명

※주요협정: 조세조약(1967), 사회보장협정(2013)

## 아르헨티나

※인구 (2022년)	4,604만명		
※1인당 GDP (2022년)	1만 3,655달러		
	2020년	2021년	2022년
※실질GDP성장률(%)	△ 9.9	10.7	5.0
※소비자물가상승률(%)	36.1	50.9	94.8
※실업률(%)	11.0	7.0	6.3

※일본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

년	일본 수출(A) (억엔)	일본 수입(B) (억엔)	A-B (억엔)	직접투자액 (달러)
2018	816	739	76	8,314만
2019	724	629	95	6억 4,320만
2020	578	552	26	11억 5,200만
2021	955	1,064	△ 109	8,700만
2022	1,246	1,554	△ 308	350만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1년, 외무성 통계)

70사

※재류일본인(2022년)

11,189명

## 칠레

※인구 (2022년)	1,983만명		
※1인당 GDP (2022년)	1만 5,095달러		
	2020년	2021년	2022년
※실질GDP성장률(%)	△ 6.1	11.7	2.4
※소비자물가상승률(%)	3.0	7.2	12.8
※실업률(%)	10.3	7.2	7.9

※일본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

년	일본 수출(A) (억엔)	일본 수입(B) (억엔)	A-B (억엔)	직접투자액 (달러)
2018	2,202	8,003	△ 5,802	△1억 6,600만
2019	2,233	7,253	△ 5,020	8억 600만
2020	1,080	7,479	△ 6,399	9,900만
2021	2,031	8,548	△ 6,517	8억 4,200만
2022	3,010	9,815	△ 6,805	N.A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1년, 외무성 통계)

117사

※재류일본인(2022년)

1,576명

※주요협정: EPA협정(2007), 조세조약(2017)

## 페루

※인구 (2022년)	3,347만명		
※1인당 GDP (2022년)	7,094달러		
	2020년	2021년	2022년
※실질GDP성장률(%)	△ 11.0	13.3	2.7
※소비자물가상승률(%)	2.0	6.4	8.5
※실업률(%)	7.4	5.7	4.3

※일본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

년	일본 수출(A) (억엔)	일본 수입(B) (억엔)	A-B (억엔)
2018	813	2,632	△ 1,819
2019	764	2,683	△ 1,919
2020	500	2,484	△ 1,984
2021	772	3,156	△ 2,384
2022	972	3,930	△ 2,958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1년, 외무성 통계) 69사

※재류일본인(2022년) 3,117명

※주요협정: 투자협정(2009), EPA협정(2012)

## 콜롬비아

※인구 (2022년)	5,161만명		
※1인당 GDP (2022년)	6,664달러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실질GDP성장률(%)	△ 7.3	11.0	7.5
※소비자물가상승률(%)	1.6	5.6	13.1
※실업률(%)	13.9	11.1	10.3

※일본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

년	일본 수출(A) (억엔)	일본 수입(B) (억엔)	A-B (억엔)	직접투자액 (달러)
2018	1,225	814	411	7,335만
2019	1,226	685	542	6,693만
2020	857	497	360	3,025만
2021	1,335	550	785	3,516만
2022	1,790	1,306	484	4,219만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1년, 외무성 통계) 83사

※재류일본인(2022년) 1,221명

※주요협정: 투자협정(2015), EPA협정(2012년 교섭개시), 조세조약(2018 서명)

(자료) JETRO 자료를 중심으로 필자 작성

## 일본 기업의 對중남미 진출 현황과 실태 조사 결과

○ 중남미 7개국(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 진출한 455개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실시된 실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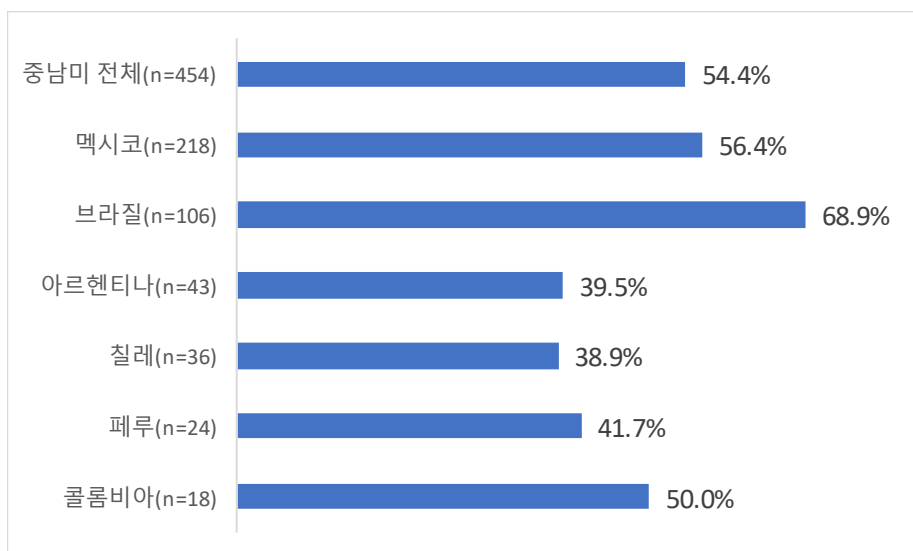
① 2022년보다는 2023년과 2024년에 보다 많은 일본계 기업의 영업 흑자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일본 기업의 생산 거점이 집적된 멕시코와 브라질임. 멕시코는 자동차 관련 업종, 브라질은 다양한 분야의 업종이 진출하고 있음.

② 중남미 지역에서 향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응답 비율이 중남미 전체에서 54.4%인데,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특히 높음. 그 이유로 멕시코에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생산 거점으로서 및 내수 시장의 확대를, 브라질에서는 거대한 내수 시장 확대를 꼽고 있음.

③ 그러나 투자환경에서는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콜롬비아,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에서는 정치 및 사회 정세의 악화가 주요한 위협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2023년 영업이익 흑자가 예상되는 기업 비율은 전체 452개사 중 64.8%로 2021년(61.7%)과 2022년(63.8%)에 비해 점차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브라질의 경우 전체 74.5%로 성장세가 높은 지역인 인도나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수치보다 높은 수준임.
- 멕시코에서는 자동차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 흑자 비율이 높는데, 이는 반도체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현지 자동차 생산이 회복되었다는 점과 폐소화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 비용이 낮아졌다는 점을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음.
- 브라질은 판매회사, 상사, 운송용기기 부품, 일반기계, 의료기구, 식품, 은행 등 다양한 업종에서 영업이익 흑자 비율이 높는데, 내수 확대에 의한 판매 증가와 물가 상승의 영향 뿐 아니라 자국통화 가치의 상승과 국제 운송비용 인하로 인한 수입 비용 하락의 영향도 있음.
- 중남미 전체를 보면 영업이익 개선의 이유(복수 응답)로 전체 61.4%가 꼽은 「현지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품·서비스·인력 확충 등 현지시장에서의 판매 체제 강화(34.1%)」와 「생산효율·판매효율·가동률 개선(23.8%)」의 순임.

〈그림3〉 진출국에서 1~2년내 사업 확대 예정 비율



(자료) JETRO(2023) 「2023年度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中南米編」를 기초로 필자 작성

- 현지에서 향후 1~2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54.5%로 국가별로는 특히 브라질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68.9%가 사업 확대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도(75.6%)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JETRO가 전세계 진출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 평균은 47.0%이고, 인도(75.6%), 브라질(68.9%), 남아공(57.7%), 베트남(56.7%), 멕시코(56.4%), 독일(54.9%), 한국(53.9%)의 순으로 사업 확대 예정 비율이 높음.
  - 브라질에서 사업 확대의 주된 이유로 현지 내수 시장의 수요 확대이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재생에너지, 농업, 의료, 디지털 분야에 대한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한데, 투자환경에서 개선된 사항(진출의 메리트 요인)으로는 「시장규모 및 성장성」이, 투자환경에서 악화된 사항(진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인건비」와 「정치·사회 정세」가 상위로 꼽힘(복수 응답).
  - 멕시코에서 개선 사항으로는 「시장규모 및 성장성」이 가장 높은 64.9%, 다음이 「거래처 기업의 집적(19.5%)」, 「종업원의 이직률(12.1%)」의 순이고, 악화 사항으로는 「인건비(46.5%)」, 「세제 및 세무 수속의 번잡성(21.9%)」, 「환율(20.3%)」의 순으로 높음.
  - 브라질에서도 개선 사항으로는 「시장규모 및 성장성(50.0%)」, 「정치·사회 정세(21.6%)」, 「환율(15.9%)」의 순이고, 악화 사항으로는 「인건비(32.5%)」, 「세제 및 세무 수속의 번잡성(22.9%)」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에서 개선 사항으로는 「시장규모 및 성장성(30.0%)」, 「종업원의 이익률(25.0%)」, 「종업원의 채용 상황과 고용의 용이성(20.0%)」의 순이고, 악화 사항으로는 「정치·사회 정세(69.0%)」, 「현지 정부의 정책 운영(47.6%)」, 「환율(42.9%)」의 순으로 높아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불안한 정치 상황이 일본 기업 진출의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한편 고용관련으로는 중남미 전체에서 약 절반 정도의 일본계 기업이 인재 부족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멕시코에서는 공장 노동자 부족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일반 관리직과 전문직 인재 부족이 현저한 상황임.

 **총괄**

-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진출 전략은 기존의 식량과 광물 확보를 위한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는데, 이에 더하여 브라질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내수의 다양한 소비자 수요 존재와 디지털화 수요에 대응한 판매 전략도 추가되어 전개되어 오고 있음.
- 멕시코에 관해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미주의 생산 거점으로서의 기능, 브라질에 관해서는 거대 소비 시장으로서 기능, 페루·칠레·콜롬비아에 관해서는 광물 자원 확보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명확해 지고 있는데, 소비 시장 확보와 광물 자원 확보 기능은 중국의 진출 확대의 영향을 받아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 〈참고문헌〉

- 外務省『外交青書 2023』外務省, 2023.4
- 外務省「2022年度中南米日系社会実相調査」外務省, 2023.6
- 経済産業省『2023年版通商白書』経済産業省, 2023.6
- JETRO「2023年度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中南米編」JETRO, 2023.12
- JETRO 홈페이지 ([https://www.jetro.go.jp/world/cs\\_america/](https://www.jetro.go.jp/world/cs_america/) 최종검색일 2024년 1월 8일)
- JICA「JICAと中南米日系社会」JICA, 2019.3  
([https://www.jica.go.jp/Resource/regions/america/ku57pq0000207h3n-att/pamphlet\\_201903.pdf](https://www.jica.go.jp/Resource/regions/america/ku57pq0000207h3n-att/pamphlet_201903.pdf), 최종검색일 2024년 1월 6일)
- 高橋亮太「中南米における中国裏庭化論の実態と今後の展望」三井物産戦略研究所, 2023.8
- 三井物産戦略研究所「中南米：多様化する外交政策と産業政策」三井物産戦略研究所, 2023.10
- 미쓰비시 상사 2022년 7월 12일 보도자료  
(<https://www.mitsubishicorp.com/jp/ja/pr/archive/2022/html/0000049366.html>, 최종검색일 2024년 1월 6일)
- 미쓰비시 상사 2023년 6월 22일 보도자료  
(<https://www.mitsubishicorp.com/jp/ja/pr/archive/2023/html/0000051486.html>, 최종검색일 2024년 1월 8일)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 October 2023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Summary of Results 2022*